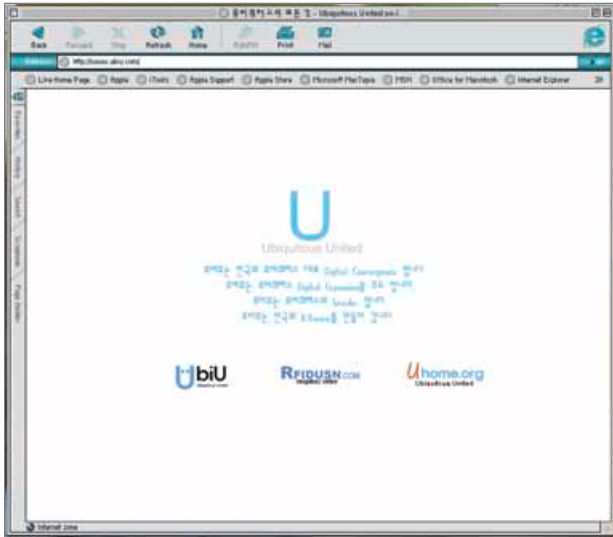


<유비유>

‘유비쿼터스의 모든 것’



글_ 김인순 전자신문 기자 insoon@etnews.co.kr

인에서 일어나는 유비쿼터스 관련 각종 세미나 소식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보는 물론 회원을 가입해야 얻을 수 있어 좀 번거롭더라도 회원에 가입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사이트 중 가장 정보가 많은 곳은 'U스터디'란이다. 이 곳에선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각종 기술 정보를 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 기초 상식에서 인문사회, 센서기술, 태그기술, 네트워크 기술, 인터페이스, 인식기술, 미들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각 요소의 기술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기초 상식 코너에 따르면 유비쿼터스의 원초적 개념에서 정보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정보 차원을 넘어 인간의 마인드를 미리 지각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선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비쿼터스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이의 파급적 효과는 점차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기술을 시대에 잘 대응해서 상용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나와있다. 센서는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최초단의 역할을 하는 장치로 동물에 비유하면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감각기관인 눈, 코, 귀, 혀, 피부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외부의 물리적·화학적 매개체의 변화량을 감지해 전기적 신호체계로 변환하는 전기 소자가 바로 센서다.

아직 유비쿼터스가 가져 올 생활의 변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 유비쿼터스의 요소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은 뒤 정보통신부가 광화문에 설치한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사이트를 통해 얻은 지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ST**



글쓰는 송신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요즘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유비쿼터스다. 유비쿼터스란 무엇인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유비쿼터스에 대해 명확한 대답과 실례를 들어준 사이트가 있다. 그 동안 가져왔던 유비쿼터스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다.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유비유(http://www.ubiu.com)다.

유비쿼터스란 라틴어로 '언제 어디에나 있다'를 뜻하는 말이다.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 제록스 팰로앨토연구소의 마크 와이저 소장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메인프레임, PC에 이은 제3의 정보혁명의 물결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해 이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사이트답게 유비유에서는 탄탄한 기초 기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유비유에는 국내외 최신 유비쿼터스 뉴스에서 시작해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특히, 국내외 논문과 번역 자료 등이 공급된다. 또 유비쿼터스의 세계를 좀더 깊게 이해하는 공부방과 온-오프라